



# 힘내라 한국문학, 힘내라 문학 '청소년'

## 문학의 권위 벗은 사이버문학포털사이트 '문장' 오픈

문학의 위기, 그 지루한 담론과 결별을 선언하며 문예진흥원이 사이버문학포털사이트 '문장<sup>文場</sup>(www.munjang.or.kr)'을 오픈했다. '대한민국 대표 문학사이트'라는 자신감이 남다른데, 갈피를 찾아보니 과연 어느 하나 설익은 콘텐츠가 없다. 대중문화의 급속한 전파로 문학의 위기를 조장한 사이버 공간에서 회생을 노리고 있어 그 자세가 도도하기까지 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하 문예진흥원) 현기영 원장을 만나 문학의 위기를 헤쳐갈 '문장'에 대한 기대와 예술진흥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사이버공간에 순수문학의 장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들 요청

“현재 사이버공간에서는 장르문학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협, 판타지, 순정, 거기에 팬픽이라는 독특한 글쓰기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들이 장르문학을 반기지만, 다른 한쪽 순수문학의 장을 절실히 원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장<sup>文場</sup>'의 뜻은 문학광장<sup>文學廣場</sup>의 준말. 현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친구처럼 대하고 스스로 창작 및 감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장'에 숨은 속뜻을 전한다. 현 원장의 말처럼 '문장'의 콘텐츠들은 문학이 걸친 권위를 과감히 벗어던졌다. '웹진-문장'에는 천운영, 성석제, 김연수, 김종광 등 젊은 작가들이 독자와 어울려 놀 준비를 하고 있고, 창작공간 '블로그'는 개인의 블로그 활동이 전자책 제작으로까지 이어지게 했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1,20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된 '문학도서관'의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김선우 시인이 진행하는 인터넷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는 낯설면서도 반갑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 홈페이지 메인화면이 복잡하다는 것이 유일한 흠입니다. 그래도 각기 콘텐츠마다 대단한 정성을 들였지요. '문학도서관'의 경우 젊은 문학 전공자들을 동원해 한국 대표작가와 작품을 선정했는가 하면, 또한 그들로부터 작품의 원문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이버공간에 정확하지 않은 문학자료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것들을 정본화했다 할 수 있지요. 이전의 많은 문학 웹진들이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사라졌는데, 기획력이 돋보이는 '웹진, 문장'만큼은 인기를 누리리라 자신합니다. 창간호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 6월 1일 공식오픈한 '문장'은 회원수가 벌써 1만여 명에 이른다. 현장문학인들의 적극적인 운영참여가 소문나며 하루에 몇 번이고 출석부를 찍는 마니아도 생겨났다. 문학을 벗삼았던 모든 이들을 위해 열린 공간이지만, 그래도 '문장'이 특별히 반기는 손님이 있으니 바로 청소년이다. '문장'의 콘텐츠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글틴'에 바친 정성은 각별하다. '쓰면서 땀 굴뚝 굴', '읽으며 땀굴땀 굴', '생각하며 땀굴땀 굴'이란 꼭지 아래

문학강좌, 문학정보, 문학진로 등 문학에 관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다. 시, 이야기글, 생활글, 비평글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되는 '연중 글쓰기 대축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보너스다.

"문학을 회생시키는 데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몫이 큼니다. 인터넷문학이 왜곡시킨 문학의 아름다움을 고쳐가는 공간인 동시에 청소년들이 문학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픈 초기에는 어떤 공간인가 둘러보는 방문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 활발히 활동하는 방문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학을 아끼는 문학인들이 함께하는 공간인만큼 오래도록 잘 운영해야지요."

**"애정 없는 열정 없다" ... 시의적절한 예술진흥사업에 박수 잇따라**

문예진흥원이 오픈한 '문장'이 문학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그 에 앞서 진행된 '문학희생프로그램'은 현재의 문학을 위한 사업이다. '힘내라, 한국문학!'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원하는 '우수 문예지 지원사업', '우수 문학도서 보급사업', '문예지 게재 우수작품 선정 지원사업' 등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장 자리에 앉고 보니 예술 여러 장르 가운데 소외된 문학이 눈에 띄더군요. 예술 전 분야에 멀티소스를 제공하는 문학이 찬밥 신세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문학은 오늘 빈사상태입니다. 독자들의 외면 속에 작가들은 창작열을 잃었습니다. 문학희생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소설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해서 문학에만 특별한 애정을 바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본디 예술의 한 축이듯, 예술 전 분야에 바치는 현 원장의 열정은 이심전심 공평하다.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로 소규모복합공연장 조성, 전통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국악축전, 한 해 동안 공연·발간·전시된 작품 중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올해의 예술상 등의 사업이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문학인들이 여러 직업을 가진 것에 비해 연극인들은 참으로 외골수, 연극 하나밖에 모르더라"라는 현 원장의 말에는 안타까운 부정적 감마저 느껴진다.

"각 대학 예술학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인력 모두를 현장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며 예술을 끌어안은 사람들이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화의 바탕이 된다 하여 순수예술을 기초예술이라 고쳐 부르는데, 대중예술이 호황을 누리는 것과 달리 기초예술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 문화관광부 신설 예술교육과에 기대 커

현 원장은 최근 문화관광부에 신설된 예술교육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예술교육과에서는 예술현장의 인력들을 중·고등학교의 특별교육교사로 지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교육을 통한 소득도 소득이지만, 후배를 가르친다는 긍지는 예술인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현 원장은 말한다.



문장 홈페이지(www.munjang.or.kr)

한편 현 원장은 현장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부 문화엘리트 계층, 특정 지역만이 누리는 예술은 튼튼한 근력을 가질 수 없다. 현 원장이 문화관광부와 협심해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체제가 갖춰지면 현재 각 지방에 설립되고 있는 문화재단과 네트워크화해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계획이란다.

"로또복권 수익기금을 문예진흥원으로 끌어와 한 해 사업비가 3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소액 다건주의로 배분했던 예전과 달리 좋은 예술에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치열한 경쟁은 좋은 예술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자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출 것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과 예술인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멋진 기획과 아이디어가 생산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문학과 너무 등을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현 원장은 "소설 쓰는 일도, 읽는 일도 중단했다. 여기 사업을 잘 마무리짓고 문학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

취재\_ 박용두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